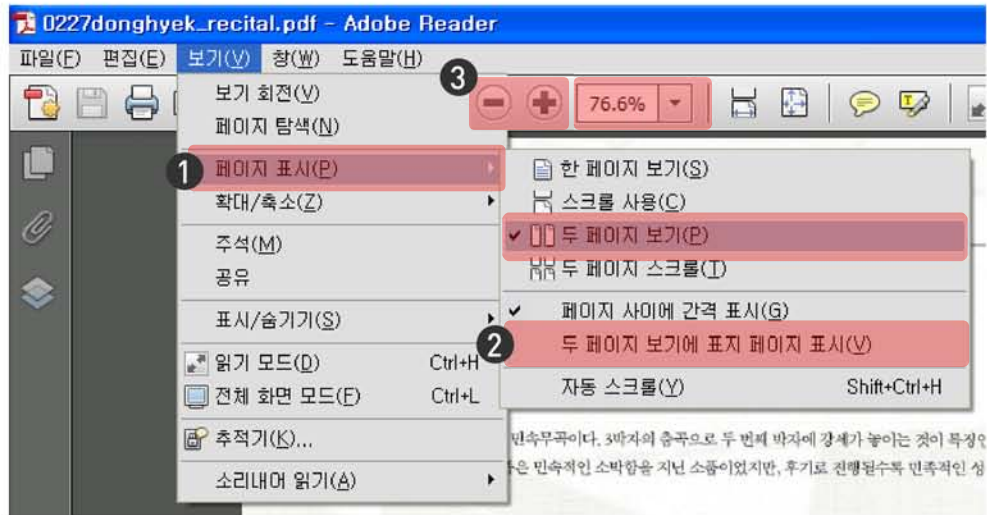


CREEDIA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하여, 공연의 프로그램북을 온라인으로 제공합니다.  
아래 안내와 같이 설정해서 보시면 더욱 편하게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Guide 1** 프로그램북 2페이지씩 보기  
(프로그램북이 한 페이지씩 보일 경우)



- ① PDF reader 메뉴바\_보기\_페이지표시\_두 페이지 보기 선택
- ② 메뉴바\_보기\_페이지표시\_두 페이지 보기에 표지 페이지 표시 선택 해제
- ③  원본 사이즈로 보기  
  확대 및 축소는 -, + 버튼 클릭

**Guide 2** 프로그램북이 2페이지씩 보일 경우  
다른 설정 없이 보셔도 편안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CREZIA**  
MUSIC & ARTISTS

# VIENNA BOYS CHOIR

20  
19

클럽발코니 유료회원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 공연장 매너 이야기

공연장에는 30분 일찍 도착해서 여유를 즐기주세요.



악장 사이 방수는 곡의 흐름을 방해해요.



옆자리를 발로 차지 마세요.



휴대폰은 잠시 꺼 두셔도 좋습니다.



공연장 내에서의 음식물 섭취는 안돼요.



크레디아 기획 공연 관람 전 유료회원 모바일 카드를 보여주세요! 프로그램북을 증정 합니다.

(만, 클럽발코니에서 예매해주신 분들만 해당됩니다.)



15만 공연 애호가들의 선택

JOIN CLUBBALCO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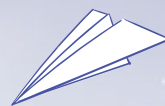
예매고수의 노하우!

- 크레디아 기획공연 5-30% 상시 할인
- 나만의 비서! 티켓 오픈 무료 SMS 서비스
- 문화애호가 필수품, ClubBALCONY 매거진 무료 우송
- 회원카드 지참시 기획공연 크레디아 프로그램북 증정
- 크레디아 기획공연 단독 선예매 및 예매, 취소, 티켓 배송 수수료 면제
- 1년 3만원, 5년 12만원, 10년 20만원! 만료 후 재가입시 할인 혜택

www.clubbalcony.com | 1577-5266

VIENNA BOYS CHOIR

# 빈 소년 합창단 신년음악회



프로그램 PROGRAM \_\_\_\_\_ 02

아티스트 PROFILE \_\_\_\_\_ 18

지휘 | 지미 창, Jimmy Chiang

합창단 | 빈 소년 합창단, Vienna Boys Choir

기사 ARTICLE \_\_\_\_\_ 24

2019.1.26 SAT 5 PM | 1.27 SUN 5 PM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CREEDIA



© LUKAS BECK

주최

CREEDIA  
INTERNATIONAL

후원

KOREAN AIR



## 프로그램

## 빈 소년 합창단

지미 창, 지휘자

2019년 1월 26일(토) - 27일(일) 오후 5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1부

---

교회음악

미하엘 프레토리우스 1571-1621

####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6성부 카논

야코부스 데 케를레 1531-1591

#### '거룩하시도다', '찬미받으소서'

4성부 <레지나 코엘리 미사> 중

한스 레오 하슬러 1564-1612

#### 주님께 노래하라

4성부 모테트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1756 - 1791

#### 주님을 찬양하라

<구도자를 위한 저녁기도> K.339 중  
소프라노를 위한 아리아

펠릭스 멘델스존 바르톨디 1809-1847

#### 찬양하여라, 주님의 종들이, 작품번호 39-2

3성부 모테트

가사: 성경 시편 113편 1-2절

세계여행

펠릭스 멘델스존 바르톨디 1809-1847

#### 노래의 날개 위에, 작품번호 34-2

<6개의 노래> 중

작사: 하인리히 하이네 1797-1856, 편곡: 지미 창

로베르트 슈만 1810-1856

#### 유랑의 무리, 작품번호 29-3

작사: 에마누엘 가이벨 1815-1884

페리 분쉬 1901-1963

#### 오늘 천사들이 빈에 오네

편곡: 게랄드 비어트

스티리아 지방의 요들 딸린 민요

#### 빠꾸기

편곡: 게랄드 비어트

경기민요

#### 아리랑

편곡: 게랄드 비어트

최영섭 1929-

#### 그리운 금강산

작사: 한상억 1915-1992, 편곡: 지미 창

인도 전통 바잔

#### 라구파티 라가브 라자 람

편곡: 게랄드 비어트

- 본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의해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휴대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 음악회 중에는 일체의 촬영 및 녹음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앙코르 곡은 크레디아 인스타그램/페이스북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부

### 극장으로

조르주 비제 1838-1875

#### 수비 임무를 하러 가며

오페라 <카르멘> 중 '거리의 소년들의 합창'

엔겔베르트 훔퍼딩크 1854-1921

#### 모래 요정과 저녁 기도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중

작사: 아델하이트 베테 1858-1916, 헤르만 베테 1857-1919

### 솔로 곡이 무대에서 발표됩니다.

펠릭스 멘델스존 바르톨디 1809-1847

#### 너 갈라진 허를 가진 얼룩뱀아

<한여름 밤의 꿈> 중 요정들의 합창, 작품번호 61-4번 1842

작사: 아우구스트 빌헬름 슐레겔 1767-1845 이 각색한 셰익스피어 희곡

마크 사이먼 1959-

#### 하례하나이다, 거룩한 여왕이시여

영화 <시스터 액트> 중

편곡: 로저 에머슨

### 슈트라우스

요제프 슈트라우스 1827-1870

#### 휴가 중에, 작품번호 133 1863

빠른 폴카

작사: 티나 브렉볼트, 편곡: 게랄드 비어트

요한 슈트라우스 2세 1825-1899

#### 산적 갠름, 작품번호 378

작사: 티나 브렉볼트, 편곡: 게랄드 비어트

요한 슈트라우스 2세 1825-1899

#### 빈 숲 속의 이야기, 작품번호 325 1868

왈츠

작사/편곡: 헬무트 프로사우어

요한 슈트라우스 2세 1825-1899

#### 헝가리 만세, 작품번호 332 1869

빠른 폴카

작사: 루돌프 에펜베르거, 편곡: 우베 테이머

요한 슈트라우스 2세 1825-1899

#### 트리치 트라치 (조잘 재잘), 작품번호 214

빠른 폴카

가사: 티나 브렉볼트, 편곡: 게랄드 비어트

# PROGRAM

# VIENNA BOYS CHOIR

Jimmy Chiang, Conductor

5pm, Sat. 26 - Sun. 27 January 2019  
Concert Hall, Seoul Arts Center

## PART 1

---

### PROCESSION

Michael Praetorius <sup>1571-1621</sup>

#### **Jubilate Deo (Rejoice in God)**

Six-Part Canon

Jacobus de Kerle <sup>1531-1591</sup>

#### **Sanctus and Benedictus**

From: Missa Regina coeli <sup>-1562</sup>, For Four Voices

Hans Leo Hassler <sup>1564-1612</sup>

#### **Cantate Domino (Sing to the Lord)**

Motet For Four Voices

Wolfgang Amadeus Mozart <sup>1756 - 1791</sup>

#### **Laudate Dominum (Praise the Lord)**

From: Vesperae Solennes de Confessore K.339 <sup>1780</sup>

Aria For Soprano With Choir

Felix Mendelssohn Bartholdy <sup>1809-1847</sup>

#### **Laudate Pueri Dominum, Op.39-2 (Praise, Boys, The Lord)**

Text: Biblical (Psalm 113:1-2)

Motet For Three Part Choir

### ON THE ROAD

Felix Mendelssohn Bartholdy <sup>1809-1847</sup>

#### **Auf Flügeln des Gesanges (On Wings of Song)**

From: Sechs Gesänge (Six Songs), Op.34

Text: Heinrich Heine <sup>1797-1856</sup>, Arr. Jimmy Chiang

Robert Schumann <sup>1810-1856</sup>

#### **Zigeunerleben (Gypsy Life), Op.29-3**

Text: Emanuel Geibel <sup>1815-1884</sup>

Ferry Wunsch <sup>1901-1963</sup>

#### **Heut kommen d' Engerln auf Urlaub nach Wean**

(Today The Angels Come To Vienna For A Holiday), Arr. Gerald Wirth

Folk Song With Yodel From Styria

#### **Der Guggu (The Cuckoo)**

Arr. Gerald Wirth

Love Song From The Province of Kyonggi Do <sup>Before 1896</sup>

#### **Arirang**

Arr. Gerald Wirth

Yohann Tschoi <sup>1929-</sup>

#### **Nostalgic Geumgangsán**

Text: Sang-Eok Han <sup>1915-1992</sup>, Arr. Jimmy Chiang

Traditional Bhajan From India

#### **Raghupati Raghav Raj Ram**

Arr. Gerald Wirth

## THE WORLD OF THE VIENNA BOYS CHOIR

- This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any notice.
- Before the concert begins, please switch off your mobile phones and electric devices.
- Recording and photographing are not allowed during the concert.

### PART 2

---

#### THEATRICAL EXPLOITS

Georges Bizet 1838-1875

#### **Avec La Garde Montante** (With The Guard On Duty)

March And Chorus Of The Street Urchins, From: Carmen

Engelbert Humperdinck 1854-1921

#### **Sandmann Und Abendsegen** (Sandman And Evening Prayer)

From: Opera <Hänsel und Gretel, EHW 93>

Text: Adelheid Wette 1858-1916, Hermann Wette 1857-1919

#### **Solo To Be Announced From The Stage.**

Felix Mendelssohn Bartholdy 1809-1847

#### **Bunte Schlangen, Zweigezüngt!** (You Spotted Snakes, With Double Tongues)

Elves' Chorus

From: Ein Sommernachtstraum (A Midsummer Night's Dream), Op. 61-4 1842

Text: August Wilhelm Schlegel 1767-1845, After William Shakespeare

Marc Shaiman 1959-

#### **Hail, Holy Queen**

From The Movie <Sister Act> 1992

Arr. Roger Emerson

#### STRAUSS

Josef Strauss 1827-1870

#### **Auf Ferienreisen (On Holiday)**

Text: Tina Breckwoldt, Arr. Gerald Wirth

Fast Polka, Op.133 1863

Johann Strauss II 1825-1899

#### **Banditen-Galopp (Bandits' Galop), Op.378**

Text: Tina Breckwoldt; Arr. Gerald Wirth

Johann Strauss II 1825-1899

#### **Geschichten Aus Dem Wienerwald** (Tales From The Vienna Woods)

Text And Arr. Helmuth Froschauer

Waltz, Op.325 1868

Johann Strauss II 1825-1899

#### **Eljen A Magyar (Hail to Hungary)**

Text: Rudolf Effenberger, Arr. Uwe Theimer

Fast Polka, Op.332 1869

Johann Strauss II 1825-1899

#### **Tritsch Tratsch (Chitchat)**

Text: Tina Breckwoldt, Arr. Gerald Wirth

Fast Polka Op.214

20  
19



[www.credia.co.kr](http://www.credia.co.kr)



[instagram.com/credia\\_official](https://www.instagram.com/credia_official)



[facebook.com/crediainternational](https://www.facebook.com/crediainternational)



[@credia](https://www.credia.co.kr)



미하엘 프레토리우스는 아이제나흐에서 가까운 크로이츠베르크에서 미하엘 슈타이스(Michael Schulteis), 혹은 슈츠(Schult)라는 이름으로 태어났다. '슈타이스'라는 이름은 옛 고지대 독어로 '질서를 가져오는 자', 혹은 '부채를 받는 자'라는 뜻인데, 실제로 지방 영주를 위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공무원 중 가장 지위가 높은 이를 일컫는 말이었다. 프레토어(Praetor)라는 단어는 대략 고전 로마어에서 같은 뜻을 지닌 말로, 따라서 프레토리우스는 '슈타이스'나 '슈츠'가 라틴화된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루터교 목사의 여섯 번째이자 막내로 태어난 프레토리우스는 신동이였다. 토르가우와 체름스트의 라틴어 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했으며 13살 때부터는 프랑크푸르트 대학에 다니면서 신학과 철학을 배웠다. 프레토리우스의 첫 직업은 16살 때 프랑크푸르트의 한 교회에서 말은 오르가니스트였다. 1594년부터는 브룬스비크와 뤼네부르크 공작을 위해서 일했는데, 처음에는 오르가니스트로 나중에는 볼펜뷔텔에 있는 궁정에서 궁정악장으로 일했다. 1612년에 공작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드레스덴에 있는 작센 선제후 궁정에서 1년을 보냈다.

프레토리우스는 당대의 가장 저명한 음악학자로 꼽혔으며 음악이론과 당대의 연주 관습에 대해서 많은 저술을 남겼다. 작곡가로서는 이탈리아의 영향과 독일 전통을 하나로 엮어냈는데, 작품도 라틴어와 독어로 썼다. 또한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던 그는 토착 전례의 발전에 공헌하기도 했다. 그가 캐롤 '장미꽃이 피었네(Es ist ein Ros' entsprungen)'를 편곡한 작품은 오늘날까지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의 작품 중 몇몇 곡은 지금도 개신교 찬송가에 수록되어 있는데,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Jubilate Deo)'도 그 중 하나다.

Text: Jubilate Deo, Alleluja.

가사: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알렐루야

야코부스 데 케를레는 플랑드르의 이프레(Ypres) 출신으로 고향의 성 마르티노 대성당 합창단원으로 첫 음악교육을 받았다. 당대의 여러 음악가들처럼 데 케를레 역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활동했다. 1550년부터는 오르비에토에서 가수이자 오르가니스트로 일했으며 1561년부터 1565년까지는 로마에 있는 오토 프루케스 폰 발트부르크 추기경 밑에서 일하면서 트리엔트 공의회를 위한 음악을 썼다. 바로 이 시기에 데 케를레는 <레지나 코엘리 미사>를 썼다. 1565년에는 이프레로 돌아가서 성 마르티노 대성당의 음악 감독이 되었다. 하지만 한 사제와 갈등을 벌인 끝에 1567년에 쫓겨났으며, 그 후로는 로마와 아우그스부르크, 캄브라이, 몽스, 쾰른에서 일했다. 1580년 무렵에는 빈 황실 경당에서 활동했으며 1583년에는 동향 출신의 필리프 데 몬테, 샤를 뤼통, 랑베르 드 사이베 등과 더불어 프라하에 있는 루돌프 2세의 궁정에서 일했다.

Text: Sanctus Dominus Deus Sabaoth. / Pleni sunt coeli et terrae gloriae tuae: / Hosanna in excelsis! / Benedictus qui venit in nomine Domini. / Hosanna in excelsis!

가사: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 높은 데서 호산나! /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 높은 데서 호산나!

하슬러는 뉘른베르크에서 작곡가 이자크 하슬러의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에게 음악을 배웠으며 1584년에는 베네치아에 가서 안드레아 가브리엘리 밑에서 공부했는데, 이탈리아로 유학을 간 최초의 독일 음악가로 꼽힌다.

1586년에는 독일로 돌아와 아우그스부르크의 옥타비우스 푸거 백작에게 고용되었다. 1600년에는 뉘른베르크 시의 음악감독이 되었고 1608년에는 매우 중요한 직책인 드레스덴의 작센 선제후의 실내 오르간 연주자로 임명되었다. 하슬러의 마지막 직책은 프랑크푸르트의 궁정 '카펠마이스터'였다.

하슬러는 개신교 신자였지만 천주교와 개신교 양쪽의 전례를 위한 음악을 다수 작곡했다. 그가 쓴 라틴어 미사와 모테트는 베네치아 악파의 영향을 보여주며, 독일 음악의 경우에는 올란드 디 라수스(유럽 여기저기를 많이 돌아다녔던 프랑스 작곡가 라수스는 1556년 이후 뮌헨에서 일했다)의 영향이 엿보인다. 당대 사람들은 특히 하슬러의 마드리갈(Madrigal: 16세기 세속음악)과 노래를 좋아했다. 그는 자신이 쓴 인기 있는 사랑 노래인 '내 영혼은 당혹스럽고(Mein G'müt ist mir verwirret)'의 선율을 재 활용해서 유명한 코랄 '아, 피와 상처로 가득한 머리(O Haupt voll Blut und Wunden)'를 썼는데, 바흐도 <마태 수난곡>에서 이 코랄을 인용한 바 있다.

이 모테트의 가사는 '여호와, 정의의 왕'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시편 96편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것은 본래 신년 축하 전례에서 우주의 지배자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부르는 것이다.

‘주님을 찬양하라’는 모차르트가 1780년에 잘츠부르크 대성당을 위해 작곡한 <고백자를 위한 장엄 저녁기도>의 여섯 악장 중 가장 유명한 곡이다. ‘고백자’는 아마도 잘츠부르크의 수호성인인 성 루베르타나 성 비르길리우스 중 한 명이며, 따라서 그 축일을 위한 작품일 것이다. 당시 모차르트는 잘츠부르크를 통치했던 제후 대주교 히에로니무스 콜로레도의 궁정에서 오르가니스트 겸 작곡가로 일하고 있었다. 엄격한 금욕주의자였던 콜로레도 대주교는 화려한 음악을 싫어했지만(짧고 순수하며 간소한 음악을 좋아했다) 모차르트는 여기에 반항하면서 계속 고용주와 갈등을 일으켰다.

‘주님을 찬양하라’의 가사는 라틴어 시편 117(116)편으로 성서에서 가장 짧은 찬양 시편이다. 모차르트의 작품은 평온하면서도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사실상 오페라 풍의 소프라노 아리아라고 할 수 있으며 마지막 부분에서만 합창단이 독창 소프라노를 감싸며 노래한다.

Text: Laudate Dominum omnes gentes, / laudate cum, omnes populi. / Quoniam confirmata est super nos misericordia eius / et veritas Domini manet in aeternum. / Gloria Patri, et Filio, et Spiritui Sancto. / Sicut erat in principio, et nunc, et semper, / et in saecula saeculorum. Amen.

가사: 주님을 찬양하라 모든 민족들아 / 주님을 찬미하라 모든 백성들아 / 그분의 사랑 우리 위에 굳건하고 / 주님의 진실하심 영원하여라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멘델스존은 풍요로운 문화적 환경에서 성장했다. 그의 가족은 여행을 많이 다녔고 큰 저택에는 훔볼트나 헤겔 같은 저명한 사람들이 드나들었다. 사회에 완전히 동화된 독일-유대계 귀족이었던 멘델스존 가문은 1816년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

멘델스존 가문은 네 아이들이 가능한 모든 교육을 받도록 했다. 둘째였던 펠릭스는 루트비히 베르거에게서 피아노를, 카를 프리드리히 쉬터에게서 음악이론과 작곡을 배웠다. 9살 때 첫 번째 공개 연주회를 열었으며 10살 때는 베를린 징아카데미 회원이 되었다. 또 11살 때는 첫 작품들이 대중 앞에서 연주되었다. 1년 후에는 괴테와 카를 마리아 폰 베버, 케루비니를 만났다. 그 후에는 소나타와 협주곡, 현악 교향곡, 피아노 4중주와 징슈필에 관심을 돌렸는데 작품에는 대위법과 음악 형식을 점점 더 능숙하게 다루는 솜씨가 드러나 있다.

스무 살의 ‘성숙한’ 나이가 된 1829년에는 베를린 징아카데미에서 600명에 달하는 합창단을 이끌며 바흐의 <마태 수난곡>을 연주하는 선구적인 업적을 달성했다. 이 한 번의 연주(‘사건’)는 바흐 음악이 합창단들의 고정 레퍼토리가 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멘델스존은 음악 축제 기획자로도 유명했는데 특히 라인강 하류 음악제와 버밍햄 음악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지휘자 및 기획자로서 멘델스존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며 큰 찬사를 받았던 시기(1835-47)였다. 1843년에는 라이프치히 음악원을 설립하고 로베르트 슈만과 모리츠 하우프트만을 교수로 초빙하기도 했다. 멘델스존은 몇 차례의 뇌졸중을 일으킨 끝에 38살에 세상을 떠났으며, 그의 죽음은 국제적인 추모가 이어졌다.

멘델스존 음악에서는 바흐와 헨델,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서 영감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음악가였다. 그의 작품에서 흔히 문학적, 미술적, 역사적, 지형적, 감정적인 함축적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근원적인 아이디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8성부와 오르간을 위한 ‘찬양하여라, 주님의 종들아’는 대림절을 위한 모테트이다. 이 작품은 그가 로마의 ‘트리니타 데 몬티’ 수녀원의 수녀들을 위해서 쓴 감동적인 세 편의 작품 중 하나로, 나머지 두 작품은 ‘주님, 임하소서(Veni Domine, op.39-1)’와 ‘목자께서 부활하셨다(Surrexit pastor bonus, op.39-3)’이다. 1830년 12월 이 세 곡을 완성하기 직전에 베를린에 있는 가족들에게 쓴 편지에서 멘델스존은 다음과 같이 썼다.

‘해가 지면 모든 풍광과 색깔이 변합니다. 아베 마리아를 노래할 시간이 되면 저는 프랑스 수녀들의 노래를 들으러 트리니타 데 몬티 성당에 가지요. 그들의 노래는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주님 덕분에 저는 아주 인내심이 많아졌고, 신안심으로 훌륭하지 못한 음악을 겨우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겠어요? 작품은 형편없고, 오르간 연주는 말도 안 되지만, 땅거미가 질 무렵에 다채로운 색깔의 성당은 무릎 꿇은 사람들로 가득하고 문이 열릴 때마다 저무는 태양이 사람들을 비추지요. 노래를 담당한 두 명의 수녀는 더없이 달콤한 목소리를 지녔고 감동적인 연약한 목소리로 노래해요. 특히 그 중 한 명이 사제들의 거친 목소리로 듣는 데 익숙해진 응송을 노래할 때면 묘한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가수들을 볼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만큼, 저는 색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알고 있는 그 수녀들을 위해서 무언가 작품을 써서 보내자는 생각이죠. 그럴 방법이 많으니까요. 내가 이제껏 한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내 작품을 노래하는 것을 듣는 것은 재미난 일일 거예요, 또 그 수녀들이 알지 못하는 독일 아반인에게 노래를 들려줄 일도 그렇구요. 정말 기대되는 일입니다. 가사는 라틴어로 되어 있고 성모 마리아에게 바치는 기도죠. 정말 멋진 아이디어 아닌가요?’

Text: Laudate pueri Dominum, / laudate nomen Domini. / Sit nomen Domini benedictum ex hoc nunc et usque in saecula.

가사: 찬양하여라, 주님의 종들아 /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을 / 주님의 이름은 찬미받으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노래의 날개 위에’는 독일 역사상 가장 뛰어난 작가 중 한 명인 하인리히 하이네가 쓴 유명한 시에 붙인 유명한 작품이다. 멘델스존과 마찬가지로 유대계였던 하인리히 하이네는 이 작품에서 자신의 사랑을 노래한다. 시인은 사랑하는 여인을 떠나면 곳으로 떠나 보낸다.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반에 유럽인들은 동양적인 모든 것에 매혹되었는데, 산스크리트어 작품의 번역이 출판되고 사람들은 인도에 대한 그리움과 인연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이네는 이국적이고 신비스러운 낙원을 그리면서 사랑하는 이를 갠지스 강가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데려간다.

사실상 뒤따르는 가사의 모든 단어는 사랑을 암시한다. 붉은 꽃은 말할 나위 없이 성적인 은유다. 진흙에서 피어나는 연꽃은 순수함의 상징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독일 낭만주의 문학의 전성기에 나온 하이네의 시에서는 이상적인 사랑을 의미한다. 웃어대면서 별에게 반한 푸른 제비꽃(겸손함을 의미한다)과 붉은 장미(여왕을 의미한다)도 있으며, 이들은 <아라비안 나이트>의 ‘세헤라자데’ 같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 다음에 나오는 가사에서 하이네는 최고의 사랑사인 구약성경의 <아가>를 암시하는 사슴을 덧붙였다. 다정한 연인을 암시하는 또 다른 표현인 ‘사슴’은 <아가>의 저자인 솔로몬처럼 경건하고 지혜롭다. 마지막 연에서 하이네는 이 모든 것이 꿈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한다. 더 없이 행복한 꿈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즉, 당시 꿈 속에 천국이 있다는 것이다.

Text: Auf Flügeln des Gesanges, / Herzliebchen, trag' ich dich fort, / Fort nach den Fluren des Ganges, / Dort weiß ich den schönsten Ort. / Dort liegt ein rotblühender Garten / Im stillen Mondenschein; / Die Lotosblumen erwarten / Ihr trautes Schwesterlein. / Die Veilchen kichern und kosen, / Und schau'n nach den Sternen empor; / Heimlich erzählen die Rosen / Sich duftende Märchen in's Ohr. / Es hüpfen herbei und lauschen / Die frommen, klugen Gazell'n; / Und in der Ferne rauschen / Des heiligen Stromes Well'n. / Dort wollen wir niedersinken / Unter dem Palmenbaum, / Und Liebe und Ruhe trinken, / Und träumen seligen Traum.

가사: 노래의 날개위에 / 그대를 태우고 사랑하는 그대여, 갠지스 강가의 풀밭으로 가자 / 거기 우리가 설 아늑한 보금자리 있으리니 / 고요히 달빛 받는 / 장미의 화원 / 연못에서 연꽃들은 / 사랑스런 누이를 기다린다 / 오랑캐꽃 서로서로 미소하며 / 별을 보며 소곤거리고 / 장미들은 서로 정겹게 / 향기로운 동화를 속삭인다 / 깡총거리며 뛰어어나와 귀를 쫓겨가는 / 가젤레 영양들 / 멀리 컷가에 들려오는 / 냇물의 맑은 잔물결 소리 / 그 화원의 종려나무 아래 / 우리 나란히 누워 / 사랑과 안식의 숲 잔을 나누고 / 행복한 꿈을 꾸자꾸나

서적상의 아들로 태어난 슈만은 어릴 적부터 피아니스트로서 재능을 보였다. 또한 어린 나이에 작곡과 글쓰기를 시작했는데, 11살이 되던 1821년에는 라이프치히로 넘어가 법학을 공부하였다. 하지만, 정작 많은 시간을 음악과 문학에 몰두하였다(이후에는 여자와 삼페인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후 하이델베르크에서 법학 공부를 잠시 한 이후에는 가족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여 피아니스트가 되기로 결심한다. 그리고는 라이프치히로 다시 이사해서 비크가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1834년 슈만은 음악비평지인 음악신보(Neue Zeitschrift für Musik)를 발행하였다. 그는 매우 통찰력 있는 비평가였고, 그의 평론은 많은 젊은 작곡가들이 경력을 쌓는 데 도움이 되었다. 19세기 초 당대의 유행이었던 비밀과 신비를 다룬 이야기에 깊이 빠져있던 그는 때때로 두 가지 필명으로 평론을 썼다. 서정적이고 온화한 긍정적 글에는 에우제비우스(Eusebius)를, 신랄하고 부정적 글에는 플로레스탄(Florestan)을 필명으로 사용했다.

슈만은 비크 선생의 딸이자 유망한 피아니스트인 클라라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지만 클라라의 아버지는 그들의 결혼을 반대했고, 이들이 마침내 결혼에 이르기까지는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슈만은 끊임없이 작곡을 했다. 하지만 그 밖의 일들에서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라이프치히의 멘델스존 음악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고, 지휘에 도전하기도 했지만 확신이 부족했다. 또 어쩌면 마치 팟스타(근본적으로 낭만주의 시대가 만들어 낸 산물이다)와 같이 유명해진 클라라를 보며 불안감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우울증이 생겨났고, 아마도 매독에 걸리며 증세는 더 심해지게 되었다. 1854년부터 슈만은 환영을 보는 등의 일을 겪으면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이 곳에서 1856년에 세상을 떠났다.

슈만은 피아노 협주곡, 첼로 협주곡, 교향곡과 대규모 합창곡, 그리고 150곡이 넘는 가곡을 썼지만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내밀한 성향의 피아노 독주곡과 실내악곡이다. 슈만이 클라라 비크와 결혼한 해이자 무려 138곡의 가곡을 쓴 1840년에 만든 ‘유랑의 무리’는 에마누엘 가이벨의 시에 붙인 세 개의 노래(작품번호 29번) 중 마지막 곡으로, 나머지 두 곡은 ‘시골 노래(Ländliches Lied)’와 ‘노래(Lied)’이다. ‘유랑의 무리’는 대단히 활기차고 극적인 작품으로 추가적으로 붙어 있는 탬버린과 트라이앵글이 ‘집사’적인 효과를 낸다.

당시 독일 낭만주의 작곡가들과 시인들은 ‘이국적’이라는 말에 매료되었는데, ‘유랑의 무리’는 집시촌의 하룻밤을 그리고 있다. ‘나일 강의 신성한 물에서 자라나 스페인의 남녘 햇볕에 그들려’라고 환상적으로 묘사되는 집시들은 노파가 들려주는 이야기와 주술, 음식을 위해서 모닥불 곁으로 모여들며, 이 마녀(?)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넋을 잃고 춤을 추면서 황홀경에 빠진다. 집시들은 노래를 부르고 불꽃은 신비로운 빛을 뿌리지만, 결국 이 모두가 환상이었다. 아침이 되어 마법은 사라지고, 집시들은 춤고 우중충한 날씨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와 목적지를 향해 떠난다.

Text: Im Schatten des Waldes, im Buchengezweig, / da regt's sich's und raschelt und flüstert zugleich, / es flackern die Flammen, es gaultet der Schein / um bunte Gestalten, um Laub und Gestein. / Das ist der Zigeuner bewegliche Schar, / mit blitzendem Aug' und mit wallendem Haar, / gesägt an des Niles geheiligter Flut, / gebräunt von Hispaniens südlicher Glut. / Um's lodernde Feuer da lagern die Männer / Verwildert und kühn, / da kauern die Weiber und rüsten das Mahl / und füllen geschäftig den alten Pokal. / Und Sagen und Lieder ertönen im Rund / wie Spaniens Gärten so blühend und bunt / und magische Sprüche für Not und Gefahr / verkündet die Alte der horchenden Schar. / Schwarzzügige Mädchen beginnen den Tanz / Da sprühen die Fackeln den rötlichen Glanz. / Es lockt die Gitarre, die Cymbel erklingt, / wie wild und wilder der Reigen sich schlingt. / Dann ruh'n sie ermüdet vom nächtlichen Reih'n / Es rauschen die Buchen in Schlummer sie ein, / und die aus der glücklichen Heimat verbannt, / sie schauen im Traume das glückliche Land. / Doch wie nun im Osten der Morgen erwacht / verlöschen die schönen Gebilde der Nacht / es scharret das Maultier bei Tagesbeginn, / fort ziehen die Gestalten: wer sagt dir, wohin?

가사: 고욤나무 숲 우거진 그늘에 / 즐거운 잔치 벌이고 있구나 / 쌓아올린 햇불 황홀한 그 아래 / 나뭇잎을 모아 앉아 있도다 / 그들은 떠도는 유랑의 무리 / 빛나는 눈과 윤나는 머리카 / 나일 강물에 깨끗이 씻겨져서 / 불빛에 비쳐서 번쩍이도다 / 타오르는 불을 둘러싸고 / 군세고 용맹한 사나이 모여 앉아 / 여인들 바쁘게 돌아 다니며 / 술잔이 넘치게 부어주도다 / 즐거운 노래와 이야기소리 / 그리운 남국을 생각하면서 / 수심과 근심을 풀기 위하여 / 기도하는 할머니도 있도다 / 고운 처녀들 춤추며 뛰놀고 / 빨간 햇불은 더욱더 빛난다 / 음악 소리는 신나게 울리며, 유랑의 무리는 즐거워라 / 춤과 노래에도 피곤하여져 / 연한 바람에 줄음이 스며드네 / 그리운 고향 멀리 떠나서는 / 꿈속에서만 낙원을 그리네 / 동녘 하늘이 환하게 밝을 때 / 간밤의 자취는 사라졌도다 / 숲 속의 새 소리 지저귌 때에 / 어디로 가느냐 유랑의 무리.

페리 부쉬 1901-1963

## 오늘 천사들이 빈에 오네

편곡: 게랄드 비버트

‘오늘 천사들이 빈에 오네’는 문자 그대로 ‘빈 노래(Wienerlied)’로, 이 장르는 19세기 초반에 생겨났다. 처음에는 그저 ‘거리의 사람’이 쓴 작자 미상의 곡으로 불리며 술집이나 식당에서 연주되었다. 어떤 곡들은 전단지로 인쇄되기도 했으며 저속하고 외설적인 것이 많았고 또 정치적인 내용을 담은 것도 있었다. 많은 빈 노래들은 순수한 현실도피를 담고 있어서 봄날의 이야기나 사랑, 또 공원으로 가는 야유회를 노래한다. 그런가 하면 죽음도 인기있는 주제로, 이는 빈 문화의 특징이기도 했다. 음악은 감상적이고 멜랑콜리한데, 빈 왈츠나 오페레타, 행진곡의 요소를 쓴다. 또 오스트리아 민요도 있는데, 특히 요들은 멋진 효과를 낸다.

19세기 말 이 장르의 가장 인기 있는 작곡가는 요한과 요제프 슈람멜 형제로, 가사에도 등장한다. 슈람멜 형제는 기타와 클라리넷을 더해 ‘슈람멜 사중주단’을 결성했다. 이들은 빈 음악을 전문적으로 연주하면서 이 장르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형제는 놀라운 바이올린 연주 실력으로 당대의 스타로 떠올랐으며, 누구나 그들의 연주를 듣고 싶어해서 연주회장은 물론 궁정에도 초대받았다. 결국 이런 특별한 종류의 음악은 형제의 이름을 따서 ‘슈람멜 음악’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요한 슈트라우스와 요하네스 브람스 역시 슈람멜 형제의 음악을 들으러 가곤 했다.

Text: Was is denn heut nur los, / was is denn heut nur g'schehn, / heut san so überfüllt, / die achtadreiß'ger Wäg'n, / der Schaffner, den i frag', / der schwitzt vor lauter Plag', / und sagt mir gleich den Grund für diesen Feiertag. / Refrain: Heut kommen d'Engerln auf Urlaub nach Wean, / denn dort war'ns z' Haus, / drum hab'ns d'Weanastadt gern, / hör'n dann die Schrammeln und singen dazua, / d'Leuteln beim Weindler, die kriag'n gar net gnua. / Hinter an Bam steht Gott Amor und lacht, / viel wird er anstell'n in Wean heute Nacht, / der Petrus im Himmerl schaut runter auf Wien, / Weanaleut, Weanafreud, da liegt was drin ! / Der Petrus sagt verschmizt, / wie er beim Herrgott sitzt, / die Engerln möchten gern / auf Urlaub gehn nach Wean, / der Herrgott sieht das ein, / drum sagt er auch nicht nein / und unterschreibt für d'Engerln einen Urlaubsschein.

가사: 천사들이 빈으로 휴일을 보내러 온다네 / 여기가 천사들의 고향이니까 / 그래서 천사들이 빈을 사랑한다네 / 사람들이 슈람멜 음악을 듣고 따라 부를 때면 / 포도주 한 잔을 놓고 함께 앉아 언제까지나 듣고 있네 / 사랑의 신이 나무 뒤에 서서 웃으며 / 오늘밤 빈에서 일한다네 / 천국에서 성 베드로가 빈을 내려다보며 / 빈 사람, 빈의 활력, 참으로 멋지구나 / 성 베드로가 웃음을 지으며 / 주님께 말하기를 / 천사들은 휴일을 보내러 / 빈으로 가기를 좋아합니다 / 주님도 이해하신다네 / 주님께서는 그 청을 들어주시고 / 천사들이 떠나도록 허락하시네.



## 뼈꾸기

알프스 지방의 민요는 알아보기 쉬운 고유한 특징을 갖고 있다. 요들이나 요들에 가까운 후렴구 내지 고함 소리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으며, 대개 주선율은 (사람들이 특별한 훈련을 받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노래할 수 있는 성부인) 중간 성부에 있으며 훈련 받은 가수들이 부르는 위아래 성부가 주선율을 휘감아 돈다. 세월이 흐르면서 같은 가사에 서로 다른 선율이 붙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선율은 놀랄 만큼 다양하게 변화하기도 했다. 오늘 듣게 되는 민요들의 가사는 지방의 풍속을 반영하고 있는데, 계절이나 주변 자연환경을 묘사하는 경우도 있고 초원으로 소를 몰고 가는 모습, 사냥과 밀렵, 우유 짜기, 수레 물기, 나무 베기, 춤, 사랑, 죽음에 이르는 평범한 일상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사실 이런 주제는 지금도 세상 어디서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만, 알프스 산과 요들은 여기에 독특한 향토색을 더한다. '뼈꾸기'의 울음소리는 긴 겨울이 지나고 사람들이 고대하는 봄이 오는 것을 알리는 신호였으며, 그렇기에 알프스 지역의 가난한 목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했다. 이 노래는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Text: Und hiaz gehen ma zum Bründl und da trink ma an Wein / Und da hearn ma in Guggu aus der Massflaschn schrein. / Jodler / Diria hallarediria hallara Guggu / Hallarediriaho / Zwischen Ostern und Pfingstn ist die lustigste Zeit / Wann die Vögerlschean singen und der Guggu schean schreit. / Jodler / Zwischen Ostern und Pfingstn geht da meiste Schneeweg / Und da heirat mein Dirndl und i han an Dreck. / Jodler

가사: 샘으로 가서 포도주를 좀 마시자 / 거기 가면 병에서 뼈꾸기 소리를 들을 수 있네 / 요들 / 부활절과 성령강림절 사이는 가장 신나는 시간 / 새들이 아름답게 노래하고 뼈꾸기도 아름답게 봄을 알리니 / 요들 / 부활절과 성령강림절 사이에 눈도 거의 다 녹고 / 내 소녀(혹은 딸)는 결혼하고 내겐 아무 것도 남지 않겠네 / 요들

## 아리랑

아리랑은 한국을 대표하는 구전 민요로, 그 기원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각 지방마다 특색있게 발전하여 다양한 '아리랑'이 전해지고 있는데, 본 공연에서 연주되는 곡은 아리랑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경기도 지역의 아리랑이다. 현재 빈 소년 합창단의 음악감독인 게랄드 비어트가 편곡한 이후 빈 소년 합창단의 레퍼토리가 되었다.

가사: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 청천(靑天)하늘엔 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엔 꿈도 많다

## 그리운 금강산

'그리운 금강산'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대표적인 한국 가곡이다. 이 곡은 본래 1962년에 초연된 최영섭 작곡 한상익 작사의 칸타타 <아름다운 내 강산>의 11번째 곡이다. 1961년 한국전쟁 11주년 기념으로 중앙방송(현, KBS)의 위촉으로 작곡되었으며, 금강산의 절경과 분단으로 가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노래했다. 이 곡은 어떤 프레이즈도 리듬과 화음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경우가 없음에도 어색함이 전혀 없이 자연스럽게 음악적 통일성을 구현하고 있는, 우리 가곡 최고의 걸작 중 하나이다. (글 | 송주호 음악 칼럼니스트)

가사: 누구의 주재권자 많고 고운 산 / 그리운 만이천 봉말은 없어도 / 이제야 자유 만민 옷깃 여미며 / 그 이름 다시 부를 우리 금강산 / 수수만 년 아름다운 산 떠나간 지 얼마나 / 오늘에야 찾을 날 왔나 금강산은 부른다 / 비로봉 그 봉우리 깃발한 자리 / 흰 구름 솔바람도 무심히 가나 / 발 아래 산해 만 리 보이지 마라 / 우리 다 맺힌 원한 풀릴 때까지 / 수수만 년 아름다운 산 떠나간 지 얼마나 / 오늘에야 찾을 날 왔나 금강산은 부른다

## 라구파티 라가브 라자 람

'라구파티 라가브 라자 람'은 때때로 '람 둔(Ram Dhun)' 혹은 그저 '바잔'이라고도 불리며, 유명한 바잔이다. 산스크리트어로 '경배하다'라는 뜻인 'bhaj'에서 온 바잔(bhajan)은 종교적인 노래이자 노래로 하는 기도로 신에 대한(또한 신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다. 바잔은 혼자서 부를 수도 있고 또 여럿이 함께 부를 수도 있는데, 대개 보통 사람들의 신앙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라구파티 라가브 라자 람'은 모든 종교에 담겨 있는 평화의 메시지를 노래한다. 이 가사에 붙인 가장 유명한 음악 작품은 간다르바 마하비디알라야 음악원의 창립자인 비슈누 디감바르 팔루스카르(1872-1931)의 것으로, 마하트마 간디(1869-1948)와 그 추종자들이 1930년 단디(Dandi)로 '소금 행진'을



벌였을 때 불렀다. 26일이 걸린 이 행진은 인도의 불복종 운동을 알린 시발점이었다. '라구파티 라가브 라자 람'은 유명한 가수들 여러 명이 녹음했는데, 피트 시거는 1964년작 앨범 <Strangers and Cousins>에 이 곡을 넣었다. 또 <내 아버지, 간디>를 비롯한 몇 편의 발리우드 영화에도 이 곡이 등장한다. 힌두어 가사는 힌두어 학자이자 음악학자인 베크가 번역했다.

Text: raghupati rāghav rājārām, / patit pāvan sītārām / sītārām, jai sītārām, bhaj pyāre tu sītārām / ishwar allah tero naam sab ko sanmati de bhagavān / rāma rahim karīm samān / hama saba hai unaki santān / saba mila mānge yaha varadān hamara rahe mānava kā jīān

가사: 오 라마 신, 라구의 자손 /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분이여 /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 시타는 찬미 받으시어 / 신의 모든 이름들은 같은 초월자를 가리키니 / 이시바라와 무슬림 알라도 그러합니다 / 오 주님, 모든 이에게 평화와 우애를 주소서 / 우리 모두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 우리 모두 인간 승리의 영원한 지혜를 바랍니다.

조르주 비제 1838-1875

## 수비 임무를 하러 가며

오페라 <카르멘> 중 '거리의 소년들의 합창'

조르주 비제의 <카르멘>은 전형적인 스페인 오페라이다. 이 작품에는 사랑과, 질투, 병사와 밀수꾼, 집시 여인과 투우가 담겨 있다. 청중이 사랑하는 인기 작품이면서 모든 오페라 극장의 상설 레퍼토리가기도 하다. 1막에서 거리의 부랑아들이 등장해서 병사들을 흥내 내는 장면이다.

Text: Avec la garde montante / Nous arrivons, nous voilà... / Sonne, trompette éclatante! / Ta ra ta ta, ta ra ta ta. / Nous marchons la tête haute / Comme de petits soldats, / Marquant, sans faire de faute, / Une, deux, marquant le pas. / Les épaules en arrière / Et la poitrine en dehors, / Les bras de cette manière, / Tombant tout le long du corps. / Avec la garde montante, / Nous arrivons, nous voilà. / Sonne, trompette éclatante! / Ta ra ta ta, ta ra ta ta.

가사: 보초가 교대하러 오고 / 우리도 여기 왔다! / 나팔을 힘차게 불어라! / 타라타타, 타라타타 / 머리를 치켜 들고 / 병사들처럼 행진하자 / 실수하지 말고 소리를 외치면서 / 하나, 둘 보초를 맞추자 / 어깨를 제끼고! / 가슴은 내밀고 / 팔은 이렇게 / 똑바로 옆구리에 붙이고서 / 보초가 교대하러 오고 / 우리도 여기 왔다! / 나팔을 힘차게 불어라! / 타라타타, 타라타타.

엔젤베르트 훔퍼딩크 1854-1921

## 모래 요정과 저녁 기도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중

작사: 아델하이트 베테 1858-1916, 헤르만 베테 1857-1919

훔퍼딩크는 쾰른과 뮌헨에서 음악을 공부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음악가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반대했지만, 자기 재능을 확신했던 아들은 결국 아버지가 틀렸다는 것을 입증한다. 그는 1881-1882년 동안 바이로이트에서 바그너를 보좌했는데, 바그너의 영향은 훔퍼딩크가 1890-1893년에 쓴 가장 유명한 극작품 <헨젤과 그레텔>에 뚜렷하게 드러난다. 1893년 바이마르에서 있었던 오페라의 초연은 다름 아닌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지휘했다.

훔퍼딩크의 누이인 아델하이트 베테가 남편의 도움을 받아 쓴 대본은 <헨젤과 그레텔> 이야기에 근거한 것으로, 이 유명한 동화는 1815년에 그림 형제가 정리해서 출판했기에 그 안에는 당대 독일 대중문화가 뚜렷하게 담겨 있다. 베테의 대본은 루트비히 베흐슈타인이 1845년에 쓴 이야기를 토대로 한 것이다. 베흐슈타인은 그 자신이 계모의 손에서 컸기에 어른이 사악한 이유로 아이들을 숲으로 보낸다는 모습을 삭제했다. 그러면서 못된 계모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숲으로 보내야 하는 엄마로 바뀌었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방법으로 가난에 대처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빈 소년 합창단은 이 징수필에 나오는 유명한 장면을 연주한다. 숲 속에서 길을 잃은 헨젤과 그레텔 남매는 숲에서 밤을 지새워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때 상냥한 모래 요정이 남매를 찾아와 달래주면서 두 아이는 잠들기 전 기도를 드린다.

Text: Sandmann - Der kleine Sandmann bin ich, st! / und gar nichts arges sinn' ich, st! / euch Kleinen lieb' ich innig, st! / bin euch gesinnt gar minnig, st! / Aus diesem Sack zwei Körnelin / euch Müden in die Äugelein: / die fallen dann von selber zu, / damit ihr schlaft in sanfter Ruh'; / und seid ihr brav und fein geschlafen ein: / dann wachen auf die Sterne, / aus hoher Himmelsferne; / gar holde Träume bringen euch die Englein! / Drum träume, träume, Kindchen, träume, / gar holde Träume bringen euch die Englein! / Hänsel und Gretel - Abends will ich schlafen geh'n, / vierzehn Engel um mich steh'n. / zwei zu meinen Häupten, / zwei zu meinen Füßen, / zwei zu meiner Rechten, / zwei zu meiner Linken, / zwei die mich decken, / zwei, die mich wecken, / zwei, die mich weisen / zu Himmels Paradiesen!

가사: (모래 요정) 나는 작은 모래 요정, 헛 / 해치러 온 것이 아니에요, 헛 / 나는 아이들을 사랑해요, 헛 / 너희들을 사랑해요, 헛! / 이 자루에서 두 가지 모래를 꺼내 / 너희들 눈에 뿌리면 / 저절로 눈이 스르르 감겨 / 편안하게 잠들 수 있어요 / 그래서 너희들이 푹 잠들면 / 저 높은 곳 하늘에서 / 별들이 깨어나고 / 천사들이 멋진 꿈을 줄 거예요 / 그러니 아가들아, 꿈을 꾸세요 / 천사들이 멋진 꿈을 줄 거예요 / (헨젤과 그레텔) 내가 밤에 자려고 할 때 / 열네 천사가 나를 지킵니다 / 둘은 머리맡, 둘은 발치에 / 둘은 오른쪽, 둘은 왼쪽에 / 둘은 감춰주고, 둘은 깨워주며 / 둘은 내게 천국을 보여줍니다.



&lt;한여름 밤의 꿈&gt; 중 요정들의 합창, 작품번호 61-4번

1826년에 17살 소년 멘델스존은 셰익스피어 유명한 희곡 <한여름 밤의 꿈>을 쉐레겔의 (독일어) 번역본으로 읽게 된다. 그는 여기에 영감을 받아 서곡을 썼으며 1842년에는 다시 프러시아 국왕 프레데리크 빌헬름 4세의 의뢰를 받아 극 부수음악으로 열 개의 다른 악장 유명한 '결혼행진곡'이 포함되어 있다를 썼다. 빈 소년 합창단은 푸크의 마법의 숲과 그곳에 사는 동물들에 대해서 독창적인 해석을 만들어 냈다.

Text: Erste Elfe / Bunte Schlangen, zweigezügelt, / Igel, Molche, fort von hier! / Dass ihr euren Gift nicht bringt / In der Königin Revier! / Chor / Nachtigall, mit Melodei / Sing in unser Eiapopei! / Eiapopei! Eiapopei! / Dass kein Spruch, / Kein Zauberfluch / Der holden Herrin schädlich sei. / Nun gute Nacht mit Eiapopei! / Zweite Elfe / Schwarze Käfer, uns umgebe / Nicht mit Summen! Macht euch fort! / Spinnen, die ihr künstlich webt, / Webt an einem andern Ort! / Chor / Erste Elfe / Alles gut, nun auf und fort! / Einer halte Wache dort!

가사: (첫 번째 요정) 헛바닥 갈라진 얼룩뱀아 / 가시 돌친 고슴도치들아, 눈에 띄지 말아라 / 도롱뇽과 도마뱀아, 해를 끼치지 말아라 / 우리 요정 여왕님 근처에는 얼씬도 말아라 / (합창) 필로멜라, 아름다운 선율로 / 달콤한 자장가를 불러라 / 자장, 자장, 자장가, 자장 자장 자장가! / 헤치면 안 돼 / 주문도, 마법도 / 우리 여왕님 근처에는 오지 말아라 / 그러면, 자장가로 주무시기를 / (두 번째 요정) 실 찌는 거미들아, 오지 말아라 / 다리 긴 벌레들도 오지 말아라! / 딱정벌레도 가까이 오지 말아라 / 지렁이도 달팽이도 나쁜 짓을 말아라 / (합창) 모두 물러가라! 이제 모든 것이 잘 됐다 / 한 명은 떨어져서 보초를 서라.

영화 <시스터 액트>에 나오는 '하례하나이다, 거룩한 여왕이시여'는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합창곡으로 청중을 웃음짓게 만드는 작품이기도 하다. 이 노래는 조용한 찬가에서 시작해서 곧 기쁨이 넘치는 합창과 리듬감 풍부한 박수가 폭발하는 음악으로 변신한다.

영화에서는 우피 골드버그의 지휘로 수녀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 영화에서 골드버그는 조직적인 범죄에서 도피하려는 라스베가스 가수로 나온다. 그녀는 점점 빈약해지는 수녀들의 합창단을 활력이 넘치는 근사한 앙상블로 바꾸는데, 그 결과 그때까지 텅 비었던 성당은 사람들로 꽉 차게 된다.

이 노래에 나오는 독창부인 'Mater ad mater inter marata'라든가 'Virgo respice' 같은 말은 고전적인 라틴어가 아니라 문법에 맞지 않는 말이지만, 사실 이것은 중세 시대의 꽤 많은 가사도 마찬가지였다. 첫 번째 것은 대충 '어머니 중의 어머니'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사실 문법적으로 올바르게 되려면 'ad'라는 말이 맞지 않지만, 어쩌면 이 말은 그저 '아나' '오' 같은 감탄사로 쓰인 것인지도 모른다. 또 'marata'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 단어인데, 'merata'나 'meraca'를 잘못 쓴 것인지도 모른다. 이런 경우라면 이 말은 '벽에 둘러싸인'이라는 뜻이 되는데, 수녀원을 가리키는 것인지는도 모른다. 물론 이 가사가 영화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이 노래를 지휘한 등장인물이 라스베가스 가수인만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 필요는 없을 것이다.

Text: Hail holy Queen enthroned above, oh Maria, / Hail mother of Mercy and of Love, oh Maria, / Triumph all ye cherubim! / Sing with us ye seraphim! / Heaven and Earth, resound the hymn! / Salve Regina! / Our life, our sweetness here below, oh Maria, / Our hope in sorrow and woe, oh Maria, / Triumph all ye cherubim! / Sing with us ye seraphim! / Heaven and Earth, resound the hymn! / Salve Regina! / Alleluiah / Mater ad mater inter marata / Sanctus sanctus dominus / Virgo respice mater adspice / Sanctus sanctus dominus

가사: 하늘의 여왕이신 성모 마리아, 오 마리아 / 자비와 사랑의 어머니, 오 마리아 / 승리가 있을지니 천사여 노래 부르자 / 하늘과 땅에 울려 퍼지도록 / 찬양하리, 찬양하리라. 성모를 찬양하리라 /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기쁨은 여기 아래에 있으니 오 마리아 / 고통과 슬픔 속에도 희망은 있네. 오 마리아 / 승리가 있을지니 천사여 / 우리와 함께 노래 부르자. 천사여 / 천국에 울려 퍼지도록 찬양하리 / 찬양하리라 성모를 찬양하세 / 알렐루야

요제프 슈트라우스는 ‘왈츠의 왕’ 요한의 동생이었다. 요제프는 음악을 공부하기는 했지만 본래 음악가가 아니라 엔지니어였으며, 자신의 직업에 대단히 만족하면서 거리를 청소하는 기계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하지만 1853년에 형인 요한이 신경쇠약으로 쓰러지자 온 가족이 나서서 요제프에게 형을 대신해서 가문의 생계가 달린 연주회 활동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요제프는 대중의 주목을 받는 것을 싫어했지만 결국 승낙하고 형이 등장할 수 없을 때마다 슈트라우스 카펠레를 지휘하게 되었다.

요한은 1863년 초 심한 우울증을 겪으면서 의사로부터 흥분하지 말 것과 작곡을 하지 말 것을 지시 받았다. 그 결과 요제프가 2월 11일에 황궁에서 열리는 학생 무도회를 위한 새 작품을 써야만 했다. 무도회는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학생들을 위한 치료 기금을 모으는 대규모 행사였는데, 그 목적 중 하나는 환자들에게 휴가를 보내주는 것이었다. 요제프가 쓴 새 풀카의 제목은 바로 여기서 가져온 것이다. 작품은 신나는 팡파레로 시작하며 중간 중간에 ‘먹어라, 마셔라(Edite, bibite)’ 같은 동시대의 학생 노래(Studentenlieder) 선율을 인용한다. 게랄드 비에르트가 마리스 안손스의 요청을 받아 빈 소년 합창단을 위하여 이 작품을 편곡했다. 이 풀카는 2016년 빈 필하모닉 신년음악회에서 처음 선보여 큰 호평을 받았는데, 마지막 부분에서는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함께 노래에 동참한다.

Text: Heute endlich Ferienbeginn, endlich Ferienbeginn: / Alle haben Reisen nur im Sinn, haben Reisen nur im Sinn. / Auf nach Singapur, nach Roc Amadour, Riga, Kopenhagen, weiter, / nicht verzagen (um die ganze -) / Auf nach Singapur, nach Roc Amadour, Riga, Kopenhagen, um die Welt. / Ach, wohin die Reise uns auch führt / und was dabei noch passiert / keiner bleibt davon gänzlich unberührt / das Leben ist es, was man spürt. / Wilde Bilder für das Fräulein Hilda / Wieder Lieder singen wir für Ida / noch ein Selfie mit der schönen Elfi / So beglücken schöne Augenblicke, / so kann man sich bestens amüsieren. / Wilde Bilder von dem Fräulein Hilda / Wieder Lieder singen wir für Ida / noch ein Selfie mit der schönen Elfi / Alle haben jetzt ihr Souvenir! / Wer verreist, wer verreist, der kann was erleben - / (und) sind Menschen weitgereist, (dann) sie zu Recht als Weise preist. / Reisen ist, Reisen ist, Reisen ist das Leben / (und) sind Menschen weitgereist, (dann) sie zu Recht als Weise preist. / Heute endlich Ferienbeginn, endlich Ferienbeginn / Alle haben Reisen nur im Sinn, haben Reisen nur im Sinn... / Reisen ist die Welt! / He!

가사: 오늘, 마침내 휴일이 시작되고, 휴일이 시작되고 / 모든 이들은 여행을 생각한다네 / 싱가포르, 로카마두르로, 리가로, 코펜하겐으로 가자, 포기하지 말고 / 싱가포르, 로카마두르로, 리가로, 코펜하겐으로 가자, 전 세계를 일주하자 / 어디로 여행을 가든 / 도중에 무슨 일이 생기든 / 무심한 사람은 없으니 / 우리가 느끼는 것이 인생이여라 / 힐다 양을 위해서는 야생의 사진을 / 이다를 위해서는 우리 새로운 노래를 / 아름다운 엘피와는 함께 셀카를 찍네 / 이것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시간 / 가장 멋진 시간을 보내는 방법 / 힐다 양을 위해서는 야생의 사진을 / 이다를 위해서는 우리 새로운 노래를 / 아름다운 엘피와는 함께 셀카를 찍네 / 모두가 각자 어울리는 기념품을 가졌네 / 여행을 하는 사람은 인생을 경험하는 것 / 여행을 많이 한 사람은 현명하다고 할 수 있다네 / 여행은 곧 인생 / 여행을 많이 한 사람은 현명하다고 할 수 있다네 / 오늘, 마침내 휴일이 시작되고, 휴일이 시작되고 / 모든 이들은 여행을 생각한다네 / 여행은 곧 세상이라네! / 야호!

‘왈츠의 왕’, 요한 슈트라우스 2세는 사실 슈트라우스 가에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두 번째 인물이지만 악명의 여지없이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이다. 그의 아버지 요한(1804-1849), 요한 자신, 그리고 그의 동생인 요제프(1827-1870), 그리고 에두아르트(1835-1916)를 비롯하여 가문의 구성원들 중 최소 네 명이 뛰어난 작곡가로서 활동하였다. 요한이 10살이었을 때, 그의 아버지는 궁정무도회의 악장자리에 올랐다. 영예로운 자리에 올랐음에도 정작 요한 슈트라우스는 이들이 불안정한 직업인 음악가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그를 상업학교에 입학시켰다. 하지만 요한은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 몰래 음악 교육을 받았으며, 19살 때 자신만의 오케스트라를 조직해서 성공을 거두게 된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음악은 대부분 집시 음악과 유대 민속 음악의 영향을 받았다. 그의 음악과 관련하여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이 몇 가지 있는데, 빈의 모든 이들을 충추게 만들었던 슈트라우스 2세 본인은 정작 예민하고 까다로운 성격의 소유자로 평생 외로움에 시달렸으며, 춤이라고는 전혀 추지 못했다.

<산적 갤럼>은 슈트라우스의 오페레타인 <메투살렘 왕자>에서 발췌한 곡들을 하나로 엮은 작품이다. 제목은 오페레타의 장면 중, 도적 떼들이 신이 나서 도적질을 예고하는 부분에서 따 온 것이다. 빈 소년 합창단은 2013년에 이 풀카를 레퍼토리에 추가하였으며, 빈의 스페인 승마학교에서 온 백색의 리피자너 중 말들과 함께 특별한 무대를 위해 이 노래를 준비했다.

Text: In der Nacht / Wer ist da? / Bist du wach / Was ist das? / Wie es heisst / weht ein Geist / durch das Schloss. / Hui! / Hörst du nicht? / Wie es ächzt? / Was geschieht? / Oder krächzt? / und vielleicht / ist der Geist / hoch zu Ross. / Hui! / Siehst du das? / An der Wand / Spürst du das? / Eine Hand / Dieser Geist / ist doch bloss / Fantasie. / Hui! / Wollte man darüber spekulieren / braucht man sich nicht wirklich echauffieren / ohne sich in Worten zu verlieren / manche Dinge bleiben besser ungesagt. / Wie die Geister polternd galoppieren / ohne irgendetwas zu berühren / wird man einen leisen Lufthauch spüren / und im ersten Stockwerk tobt die Wilde Jagd. / Federleicht ist ein Geist / gleitet ohne Gewicht / und spürt sich dabei selber nicht / Federleicht geht der Geist / mit sich selbst ins Gericht / ein Federleichtgewicht / fasst man nicht. / Wilde Jagd, / Poltergeister machen wilde Jagd, / Poltergeister machen Jagd auf dich, auf dich. / Fürchte dich: / Der Geist bin ich. / Der Geist, das bin ich!

가사: 한 밤 중에 / 거기 누군가? / 깨어 있나? / 뭐라고 했는가? / 성 안에 / 유령이 돌아다니고들 한다네 / 와아! / 들리지 않나 / 으스스한 신음소리가 / 무슨 소리지? / 무시무시한 신음소리구나 / 이 유령은 아마도 / 말을 타고 다니는 것 같구나 / 와아! / 보이는가? / 저기, 벽 위에 / 느끼는가? / 손의 감촉을 / 이 유령은 / 그저 사람들 생각일 뿐이지 / 와아! / 이 유령은 / 그저 사람들 생각, 생각일 뿐이지 / 추측을 해보고 싶다면 / 스스로를 망치지 말고 / 함부로 말하지도 말아라 /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은 일도 있는 법 / 유령이 누구도 건드리지 않고 / 분주히 돌아다닐 때 / 사람들은 으스스한 기분을 느끼며 / 뒤통에서는 유령 사냥이 벌어진다네 / 깃털처럼 가볍게 / 유령은 무게도 없이 움직이며 / 자기 자신도 느끼지 못한다네 / 참으로 가벼운 유령은 / 자신을 저울에 달아 보지만 / 너무나도 가벼워서 / 질 수가 없다네 / 시끄러운 유령이 / 유령 사냥에 가세하여 / 당신을 쫓으니, 당신을 쫓으니 / 조심해야 할 거야 / 유령은... 나 / 유령은... 나는 그이니까!



이 왈츠는 콘스탄틴 폰 호엔로에-실링스피르스트 왕자에게 헌정된 곡으로 1868년에 작곡되었는데, 아마도 왕자가 주최하는 저녁 연회를 위해 쓰였을 것이다. 이 작품은 빈의 숲속에서 들려오던 민속음악에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제목은 물론이거니와 작품의 멜로디, 치터(현악기의 일종)의 빈번한 사용이 이 사실을 입증해준다. 이 작품은 대중적인 왈츠곡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오스트리아 황제가 종종 신창했던 곡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슈트라우스 자신의 오페레타 <빈 기질 (Wiener Blut)>에서 이 곡의 멜로디 중 몇 개를 다시 사용하였다.

Text: Der Frühling ist im Wienerwald, / der Lerche Jubelruf erschallt, / in zartem Grün die Knospe springt. / ein Jauchzen um die Welt erklingt. / Ja, Frühling ist im Wienerwald, / in Feld und Hain es widerhallt, / das Jauchzen, Jubeln, Singen. / Silberhell die Glocke klingt, / Freude in die Herzen bringt / und zum Reigen locken Geigen / und in dieser Lenzesprache / strahlend hell die Sonne lacht: / Ja, der Frühling ist wieder erwacht. / Und durch die Frühlingsluft / zieht süßer Blütenduft / man hört die Finken schlagen / all ihre Lieder sagen, / Ja, hier im Wienerwald, / Frühling, Melodie, Poesie. / Alle Blüten in dem Grün sind voll Musik / jedes Herz vergisst den Schmerz, / kennt nur das Glück. / Viele junge Paare ziehen hinaus / und lassen alle Sorgen zuhause. / Ja, alles schwebt im Tanze dahin, / es jauchzen, klingen die Melodien, / sie klingen, singen süß durch die Nacht / und vergnügt Gott Amor lacht, / Duftend blüht der Flieder, / schelmisch sieht der Mond hernieder, / komm zu mir, du hübsches Kind, / gib mir einen Kuss geschwind, / lass dich nicht lang bitten, / sieh, mit Walzerschritten / naht das Glück! / Liebeslust, Liebesleid, / immer gleich jede Zeit, / wenn der Frühling erwacht / holde Liebe dir lacht, / ist der Frühling vorbei, / ist vorbei auch die Treu. / In vielen jungen Herzen / regt sich nun das erste Weh. / Über alle Freuden, über alle Leiden, / durch die langen Zeiten in die Ferne weit / erklingt des Waldes rauschendes Lied, / dass durch die ganze Welt hin es zieht, / erfreut das Herz, erfreut das Gemüt, / das Wiener Walzerlied. / Wenn Fichten erzählen / Geschichten aus dem Wienerwald

가사: 빈 숲에 봄이 왔다네 / 종달새는 기쁘게 노래하고 / 새싹이 푸르게 돌아오니 / 온 세상이 기뻐하네 / 빈 숲에 봄이 왔다네 / 들관과 초지에서 봄이 오는 소리를 듣네 / 기뻐하고, 환호하며, 노래하라 / 종소리가 은빛으로 울려 퍼지며 / 가슴 속에 기쁨을 가져오고 / 바이올린 소리에 사람들이 춤을 추네 / 이 화려한 봄에 / 태양도 밝게 빛난다네 / 봄이 진정 돌아왔다네 / 봄의 대기 속으로 / 향기로운 꽃내음이 퍼진다네 / 작은 새가 지저귀며 / 온갖 종류의 노래를 부르네 / 빈 숲 여기 저기에서 / 봄이, 선율이, 시가 들려네 / 온갖 꽃과 나뭇잎에 음악이 가득하고 / 모든 가슴에는 고통이 사라져 / 오직 행복을 느낀다네 / 젊은 남녀들이 밖으로 나가며 / 슬픔을 버리고 간다네 / 모두가 기쁘고 화려한 선율의 / 왈츠를 추고 / 밤에 달콤하게 울려 퍼지는 노랫소리에 / 사랑의 신은 기쁘게 웃네 / 향긋한 라일락이 피어나고 / 달님이 반짝이며 내려다보니 / 귀여운 아이야, 내게로 오라 / 어서 내게 입맞춤 해주고 / 내가 애원하게 만들지 마오 / 보라, 왈츠 안에 / 행운이 담겨있다네 / 사랑의 기쁨과 사랑의 고통은 / 언제나 같은 것이리니 / 봄이 깨어날 때 / 사랑이 그대에게 미소 짓고 / 봄이 지나자마자 / 변함없는 사랑도 떠나간다네 / 무수한 젊은이들이 / 첫 번째 고통을 느낀다네 / 모든 기쁨과 고통 위로 / 시간과 공간을 가로질러 / 숲의 노래가 울려 퍼져 / 온 세상을 채운다네 / 노래가 마음을 기쁘게 만드니 / 바로 빈 왈츠여라 / 빈 숲의 이야기를 / 전 나누가 속삭이는 그때.

1869년 3월, 슈트라우스는 그의 형제들과 '슈트라우스 카펠레'로 알려진 자신의 오케스트라와 함께 헝가리의 페스트에서의 두 번의 콘서트를 열었다. 이 공연을 위해 <헝가리 만세> 행진곡을 작곡했다. 그는 이 곡에서 유명한 헝가리의 <라코치 행진곡 (베를리오즈도 그의 작품 <파우스트의 겁벌>에 이 곡을 사용했다)의 멜로디들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폴카는 헝가리인들에게 바치는 헌정곡이다.

Text: Eljen! Lagerfeuer, klare Nacht, / Sternenpracht, alles ist wach. / Eljen! Hell das Feuer angefacht, / Lust und Freud alle Tage so wie heut', / Pusztaklang wunderbar, spiel und tanz das ganze Jahr. / Eljen a Magyar! / Komm und spiel, Sorgen lass sein, / geige und spiel allein für mich. / Czardas klingt, froh will ich sein, / reichlich will ich belohnen dich. / Laut ein Cymbal aus der Schenke klingt / Pusztalieder ein Zigeuner singt / Ungarmädel den Tokayer bringt / Und zum Tanz ein Czardas ladet ein / Ungarmädel, tanze flink und fein. / Immer wild und wilder wird der Tanz, / Ungarmädel, komm, sei mein, gehör mir ganz!

가사: 만세! 모닥불이 밤하늘을 비추고 / 빛나는 별들에 모두가 깨어있네 / 만세! 밝게 불을 피워 올려라 / 바로 오를처럼, 매일매일 행복과 기쁨이 있기를 / 푸스타의 아름다운 소리, 한 해 내내 뛰놀고 춤추세 / 헝가리 만세! / 근심걱정은 잊고서, 이리 와서 놀시다 / 나를 위해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 차르다시가 울려 퍼지고 나는 행복하고파 / 그러면 푸짐하게 보답하리다 / 여관에서는 침발이 크게 울려 퍼지고 / 집시는 푸스타에 관한 노래를 부르고 / 헝가리 소녀가 포도주를 가져오고 / 차르다시 소리가 춤을 추게 만드네! / 헝가리 소녀가 빠르고 능숙하게 춤을 추고 / 춤은 점점 더 격렬해져서 / 헝가리 소녀여, 이리 와 내 님이 되어주오.

트리치 트라치(조잘재잘)이라는 말은 요한 네스트로이가 써서 1833년에 초연한 희곡의 제목이다. 1858년에 빈의 저널리스트들이 이 이름을 사용한 풍자적인 신문을 창간하였다. <트리치 트라치>는 유명한 이들을 조롱하는 내용들로 가득했다. 1958년 3월 21일, 신문은 요한 슈트라우스의 우스꽝스러운 초상화를 실었는데, 그가 매년 러시아에 방문하는 것을 비꼬는 의미였다. 슈트라우스는 자신의 오케스트라를 데리고 파블롭스크(지금의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가서 여름을 보내며 그곳에 휴가를 온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공연하곤 했다. 이 신문은 그와 한 러시아 여성과의 염문설을 은근히 암시하였는데, 이 가십은 곧 빈 전역에 들불처럼 퍼져나갔다. 슈트라우스는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이 풀카를 썼다.

트리치 트라치는 1958년 8월부터 11월동안에 쓰여졌으며, 11월 24일 빈의 슈피텔베르크에 위치한 '큰 검은 방울새(The Great Siskin)'라는 이름의 선술집에서 처음 무대에 올랐다. 빈의 언론들은 이 작품이 작곡된 배경과 첫 공연, 그리고 출판에 이르기까지의 동향을 계속해서 실어 날랐는데, 찜찜한 길이의 곡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보이는 이 성대한 관심은 19세기 식의 대대적 홍보라 불릴만한 한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곡에 가사를 붙여 불렀는데, 빈 소년 합창단이 노래하는 가사는 열심히 소문을 퍼나르는 행동과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는 익살스럽게도 플라톤에 대한 헌사로 끝난다.

이 활기찬 풀카는 때때로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사용되기도 했다. 007 시리즈 중 하나인 <문레이커>에서, 본드로 분한 로저 무어가 호버 크래프트를 타고 성 마르크 광장으로 활강해 내려가는 장면에서 이 노래가 흘러나온다.

빈 소년 합창단은 오스트리아 음악인들을 대표하는 노래인 이 유명한 작품을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신년 음악회에서 1988년, 1998년, 2012년에 불렀다.

Text: Er ist – man sagt – (Ach, Klatsch - und Tratsch) / Man hat sich schon beschwert / Er fragt – man klagt (Wir sind - empört) / Das ist doch unerhört. / Er meint – es scheint (Nur Klatsch - und Tratsch) / Er stellt sich gern zur Schau / Man glaubt – man meint (Wie schön - ist das) / Ich weiss es nicht genau. / Gerüchte brodeln ganz ungeniert / raffiniert, kommentiert / auf einmal fühlt man sich exponiert / wie es denn das nur passiert? / Das hat man noch nie vernommen! / Ist das schon mal vorgekommen? / Wie sind wir hierher gekommen, / hier an diesen Punkt? / Das Gehirn geht im Kreis / Der Verstand liegt auf Eis / während sie die Mär verbreiten / Trio / Wenn sie kleine Erbsen zählen / Um die anderen zu quälen / Zwischen Schwert und Worten wählen / wollen sie nur zeigen / dass sie tüchtig sind. / Treiben sie es auf die Spitze, / feixen, frozzeln, reissen Witze, / reden sich in Dauerhitze, / um sich zu beweisen, / dass sie wichtig sind. / Wir kommen jetzt so richtig erst in Fahrt / Inzwischen geht es wirklich hart auf hart / Wir streiten um des alten Kaisers Bart / Ja, um des Kaisers Bart. / Coda / Es ist ein Gerücht. / Was weiss man denn? Man weiss doch nichts. / Das weiss ich!

가사: 그가 -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것이 소문, 좀 더 소문을!) / 사람들이 벌써 불평을 늘어놓았네 / 그가 묻자, 사람들은 투덜거리고 (우리는 화가 났다네) / 이걸 아니지! / 그가 말하네 - 아마도 (그저 소문, 좀 더 소문을!) / 그는 오스대기를 좋아한다네 / 사람들은 믿고 - 또 요약하고 (얼마나 멋진가) /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네 / 소문은 뽀뽀스럽게 돌아다니고 / 교묘하게, 해설이 붙고 / 갑자기 별거벗은 듯한 느낌이 든다네 /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졌을까? /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 이제까지 듣도 보도 못했으니 / 어쩌다가 여기까지 / 오게 된 것일까? /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릴 때 / 마음은 뱅뱅 돌고 / 머리는 멍할 뿐 / (3중창) 사람들이 그저 다른 이를 괴롭히려고 / 별 것 아닌 일에 흥분하고 소동을 벌일 때 / 칼과 말 중에서 선택하라 / 사람들은 그저 자기가 / 얼마나 잘났는지 보여주고 싶을 뿐이네 / 사람들이 쉬지 않고 / 허죽거리고, 놀리고, 농담을 던지며 / 끝도 없이 지껓질 때 / 그저 원하는 것은 / 자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을 뿐 / 이제 시작에 불과한데 / 우리가 정말 말하고 있는 것은 / 그저 이유 없는 싸움일 뿐 / 아무 이유도 없으려라 / 코다 / 그저 소문에 불과할 뿐 / 우리가 아는 게 뭘까? 아무 것도 모르지 / 우리가 아는 건 그것뿐.

글 | 티나 브렉볼트 (Tina Breckwoldt)  
번역 및 감수 | 이준형 음악 칼럼니스트



# CRE DIA 25<sup>TH</sup> SEASON

## 빈 소년 합창단 신년음악회

Vienna Boys Choir New Year's Concert

1.26(SAT), 27(SUN)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라파우 블레하츠 & 김보소리 듀오 콘서트

Rafal Blechacz & Bomsori Kim Duo Concert

2.23(SAT)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머레이 페라히어 피아노 리사이틀

Murray Perahia Piano Recital

3.5(TUE)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성민제 리사이틀 with 장유진

Minje Sung Recital <Bass Plays Kreisler>

3.15(FRI)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 문태국 & 한지호 듀오 리사이틀

Taeguk Mun & Chi ho Han Duo Recital

3.22(FRI)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 용재 오닐 한국 솔로 데뷔 15주년 기념 I

에네스 콰르텟 리사이틀

Ehnes Quartet Recital

4.26(FRI)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핑크퐁 클래식

Pinkfong Classic

5.6(SAT) 롯데콘서트홀 | 7.27(FRI)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디즈니 인 콘서트

Disney in Concert

5.18(SAT)-5.19(SUN)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유키 구라모토 내한 20주년 기념 콘서트

Yuhki Kuramoto 20th Anniversary Concert

5월중

## 용재 오닐 한국 솔로 데뷔 15주년 기념 II

리처드 용재 오닐 리사이틀

Richard Yongjae O'Neill Recital <Voice of Viola>

6.14(FRI)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앙상블 디토 리사이틀

DITTO Chronicle 2007-2018

6.19 (WED)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조성진 & 마티아스 괴르네 듀오 리사이틀

Seong-Jin Cho & Matthias Goerne Duo Recital

## 정명훈 & 원 코리아 오케스트라

Myung-Whun Chung & One Korea Orchestra

## 머레이 페라히어 피아노 리사이틀

Murray Perahia Piano Recital

## 사라 장 바이올린 리사이틀

Sarah Chang Violin Recital

## 장한나 & 트론헤임 심포니 오케스트라 (협연 임동혁)

Han-Na Chang & Trondheim Symfoniorkester with Dong Hyek Lim

## 미샤 마이스키 & 무기크롤레기움 빈터투어

Mischa Maisky & Musikkollegium Winterthur

## 안네 소피 무터 바이올린 리사이틀

Anne-Sophie Mutter's Beethoven 250 Festival Recital

CRE DIA  
25<sup>th</sup> Anniversary  
1994-2019

# 감동의 무대가 있는 곳에 크레디아가 있습니다.

## 정명훈 & 원 코리아 오케스트라

Myung-Whun Chung & One Korea Orchestra

8.18(SUN)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조성진 & 마티아스 괴르네 듀오 리사이틀

Seong-jin Cho & Matthias Goerne Duo Recital

9.18(WED)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피터 비스펠베이 첼로 리사이틀

Pieter Wispelwey Cello Recital

9.24(TUE)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2019 차이콥스키 콩쿠르 우승자 갈라 콘서트

International Tchaikovsky Competition Prize Winner's Gala Concert

10.15(THU)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미샤 마이스키 & 무지크콜레기움 빈터투어

Mischa Maisky & Musikkollegium Winterthur

10.25(FRI)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장한나 & 트론헤임 심포니 오케스트라 (협연:임동혁)

Han-Na Chang & Trondheim Symfoniorkester with Dong Hyek Lim

11.13(WED)-14(THU)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안네 소피 무터 바이올린 리사이틀

Anne-Sophie Mutter's Beethoven 250 Festival Recital

11.29(FRI)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지용 피아노 리사이틀

Ji Piano Recital

12.1(SUN)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용재 오닐의 크리스마스 콘서트 <선물>

Christmas Concert - Richard Yongjae O'Neill & Friends

12.22(SUN)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크리스마스 콘서트 - 유키 구라모토와 친구들




Christmas Concert - Yuhki Kuramoto & Friends

12.25(WED)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사라 장 바이올린 리사이틀

Sarah Chang Violin Recital

12.29(SUN)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www.credia.co.kr ·  ·  · 



**리처드 용재 오닐 리사이틀**  
Richard Yongjae O'Neill Recital <Voice of Viola>

**자용 피아노 리사이틀**  
Ji Piano Recital

**라파우 블레하츠 & 김봄소리 듀오 콘서트**  
Rafal Blechacz & Bomsoori Kim Duo Concert

**유키 구라모토 내한 20주년 기념 콘서트**  
Yuhki Kuramoto 20th Anniversary Concert

**디즈니 인 콘서트**  
Disney in Concert

**에네스 콰르텟 리사이틀**  
Ehnes Quartet Recital

**핑크퐁 클래식**  
Pinkfong Classic

**문태국 & 한지호 듀오 리사이틀**  
Taeguk Mun & Chi ho Han Duo Recital

**Disney IN CONCERT**  
Magical Music from the Movies

합리적인 문화생활을 위한 부담없는 선택! Club **BALCONY** 1577-5266





## 지미 창

지휘자

홍콩 태생의 지휘자 겸 피아니스트인 지미 창은 십대시절부터 음악 커리어를 쌓기 시작했다. 그는 빈 '국제 합창 지휘 콩쿠르'(2004년), 미국 '골든 키 국제 예술 협회' (2000년)에서 수상하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2007년에는 크로아티아의 수도 자그레브에서 개최된 세계적 권위의 '로브로 폰 마타치치' 국제 지휘 콩쿠르에서 우승을 거머쥐면서 본격적으로 지휘자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지미 창은 오페라, 교향곡, 합창, 피아노, 실내악, 성악곡에 이르는 무궁무진한 레퍼토리로 오페라 무대와 콘서트 무대 모두에서 그의 다재다능한 음악적 재능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홍콩 판 아시아 심포니의 상임 지휘자를 역임 중이며 2007-2009년에는 독일 뤼베크 극장에서 열린 바그너의 링 사이클 공연의 부 음악감독으로 활동했다. 또한 2009-2011년에는 프라이부르크 극장에서 합창 지휘를 선보였으며, 연출가 칼릭스토 비에이토와 함께 리게티의 오페라 <르 그랑 마가브레> 초연 및 다수의 작품을 이끌었다. 2016년에는 홍콩에 새로 개최된 홍콩 비엔나 뮤직 페스티벌의 첫 예술감독으로 임명되었고, 최고의 음악가들과 함께 성공적인 말라 8번 교향곡 연주로 페스티벌을 절정으로 이끌었다.

창은 베를린 코믹 오페라, 가스티야-레온 심포니 오케스트라, 자그레브 필하모닉, 홍콩 필하모닉의 객임 지휘자로 초청받았으며, 독일 오이틴 오페라 페스티벌, 스페인 파실 페스티벌, 마카오 국제 음악 페스티벌 등 다수의 페스티벌에서 지휘하였다. 또한, 2004년 교토에서 열린 로움 음악 페스티벌에서 지휘자 세이지 오자와와 함께 음악을 연구하고 작업하였다.

그는 왕성한 연주활동뿐만 아니라, 음악 교육에도 헌신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홍콩 어린이 교향악단의 예술적 조언자이자, 젊은 지휘자를 위해 마스터 클래스뿐 아니라 오케스트라 아카데미를 이끌고 있다. 또한 어린이 오페라의 투어 프로덕션인 <어린이를 위한 오페라 파파게노>에서 투어 리더이자 출연진으로 독일어권 국가의 약 20,000명 이상의 어린이들 앞에서 공연을 선보였다.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난 지미 창은 4살 때 처음 피아노 레슨을 받기 시작했다. 그는 첼로와 작곡도 공부했으며, 13살 때 피아니스트로 대중들 앞에 섰다. 16살 때 런던 트리니티 음악 대학에서 펠로우 디플로마를 받았고, 미국 베일러 대학교에서 피아니스트 크라씨미라 오르단 교수를 사사하며 음악 학위를 이수했다. 그 후 빈 국립음악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그는 오스트리아 지휘자 레오폴드 하거를 사사하였으며, 어린 오토너, 볼프강 바징어에게도 가르침을 받았다.

지미 창은 2013년에 빈 소년 합창단의 지휘자로 임명되었다. 이후 그는 도쿄의 산토리 홀과 오페라 시티, 뉴욕 카네기 홀, 비엔나 뮤직페라인과 같은 유명 공연장에서 공연하며 유럽, 아시아 및 미국 등지에서 수많은 투어를 가지며 합창단을 이끌었다. 또한 지휘자 리카르도 무티와 마리스 안손스와 함께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작업하였다.

## JIMMY CHIANG

Conductor

The Hong Kong-born conductor and pianist started his musical career as a teenager. His major breakthrough as a conductor came in 2007 when he won the renowned "Lovro von Maticic" international competition for Young Conductors in Zagreb, Croatia. Chiang received numerous awards and honours at international competitions such as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for Young Choir Directors in Vienna (2004) and the Golden Key International Society Performing Arts Showcase in USA (2000). His versatility as a musician is reflected in his wide-ranging operatic, symphonic, choral, solo piano, chamber and song recital repertoire, both in opera pits and on concert stages. While serving as principal conductor of the Hong Kong Pan Asia Symphony, he worked as assistant music director of Wagner's "Ring" cycle at Theater Lübeck from 2007 to 2009. From 2009 to 2011, he was Kapellmeister at Theater Freiburg, where he led numerous productions, including a premiere of Ligeti's opera Le Grand Macabre with celebrated stage director Calixto Bieito.

In 2016 he became the first artistic director of a newly founded Hong Kong - Vienna Music Festival and led the festival to its climax by bringing together top musicians from both Metropolises in a stunning performance of Gustav Mahler's 8th Symphony.

Chiang has appeared as guest conductor with the Komische Oper Berlin, Orquesta Sinfonica de Castilla y Leon, Zagreb Philharmonic, Hong Kong Philharmonic, among others, and at festivals such as Eutin Opera Festival (Germany), FACYL (Spain), Macau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He was invited to study and work alongside Maestro Seiji Ozawa at the Rohm Music Festival in Kyoto in 2004.

Besides his active performing schedule, Jimmy Chiang devotes himself to music education. He is the artistic adviser of the Hong Kong Children's Symphony, directing their annual orchestra academy as well as master classes for young conductors. He has been involved with "Kinderoper Papageno", in touring productions of their children's operas, both as tour leader and performer, reaching over 20,000 children in German-speaking countries.

Born to a musical family, Chiang began piano lessons when he was four. He also studied cello and composition as a child, and made his first public appearance as a concert pianist at the age of 13. He received the Fellows Diploma from the Trinity College of Music in London at the age of 16. At Baylor University (USA), he studied with pianist Krassimira Jordan and graduated with a Bachelor of Music degree. He finished his education as "Magister Artium" at the University of Music and Performing Arts Vienna. He studied among others with Austrian conductor Leopold Hager; other mentors include Erwin Ortner and Wolfgang Watzinger.

In 2013, Chiang took on the position as choirmaster of the Vienna Boys Choir. He has since led the choir on numerous tours of Europe, Asia, and the Americas, conducting in prestigious venues like Tokyo's Suntory Hall and Opera City, New York's Carnegie Hall, and Vienna's Musikverein, and has collaborated with - among others - the Vienna Philharmonic and the Vienna Symphonic Orchestras, and with conductors like Mariss Jansons and Riccardo Muti.





## 빈 소년 합창단

소년들은 빈의 궁정 예배당에서 1296년부터 노래를 해왔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막시밀리안 1세가 궁을 포함한 모든 살림을 빈으로 옮기면서 '호프무지크카펠레(궁정 예배당)'와 빈 소년 합창단을 설립했다. 수백 년간 빈 왕실은 모차르트, 살리에리, 브루크너 등과 위대한 음악가들을 지원했으며, 요제프 하이든, 미하엘 하이든, 프란츠 슈베르트는 빈 궁정 합창단의 성가단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1918년까지는 소년합창단원들은 궁정에서만 노래하다가 1920년에 사조직으로 합창단이 재설립되었다. 1926년까지, 2,482명의 빈 소년 합창단은 97개 국가에서 1,000 회의 투어공연을 하였다. 현재 게랄트 비어트가 예술감독이자 대표를 맡고 있다.

9세부터 14세 사이로 이루어진 합창단원들 100명은 4개의 투어 합창단으로 나뉜다. 각 합창단은 학기 중 9주에서 11주 정도의 투어를 다닌다. 동시에 합창단은 매년 300회 가량의 연주회를 하며 전 세계 50만여명의 관중 앞에 서고 있다. 빈 소년 합창단의 첫 한국 투어는 1969년이었다.

빈 소년 합창단은 1498년부터 매 일요일마다 빈 궁정 예배당에서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및 빈 국립 오페라 합창단과 함께 공연해왔다. 2012년에는 합창단 전용 홀인 MuTh를 개관하였는데, 400석 규모의 최신 시설로 아티스트들과 관객들 모두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빈 소년 합창단의 레퍼토리는 중세부터 현대음악까지 모든 것을 아우른다. 투어 레퍼토리는 모테트와 가곡이 중심을 이루면서 빈 음악을 편곡해서도 부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 오페라나 월드뮤직도 공연한다.

빈 소년 합창단의 최초의 레코딩은 1907년 밀랍녹음기로 녹음한 것이었다. 그 후 지금까지 43장의 셀락 음반(shellac record)과 55장의 싱글, 128장의 LP와 CD를 주요 레이블과 녹음해 왔다. 2015년에는 도이치 그라모폰과 장기 계약을 맺었으며, 최근의 앨범으로는 2018년 발매된 비엔나 음악을 녹음한 <슈트라우스 포 에버 Staruss For Ever>가 있다.

또한 빈 소년 합창단의 세계적인 인기는 26편의 영화와 17편의 TV 다큐멘타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08년에 뉴욕에서 활동하는 영화 제작자 쿠어트 파우돈(Curt Faudon)과의 공동작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세 편의 음악 영화가 개봉되었고, 네 번째 작품인 '선한 목자(Good Shepherds)'를 제작 중에 있다.

빈 소년 합창단은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베를린 슈타츠크펠레, 오슬로 필하모닉, 피츠버그 심포니 등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리카르도 무티(궁정 음악당의 명예회원이기도 하다), 안드레스 로스코 에스트라다, 크리스티안 틸레만, 시몬 영 과 같은 세계적인 지휘자와 함께 공연하고 있다. 그 중 가장 하이라이트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신년 음악회에 출연한 것으로, 2012년과 2016년에 빈 소년 합창단은 마리스 안손스의 지휘로 공연을 했다.



대표 겸 예술감독  
**게랄트 비어트**

빈 소년 합창단 공식 홈페이지 [www.wsk.at](http://www.wsk.at)

## VIENNA BOYS CHOIR

Boys have been singing at Vienna's Imperial Chapel since 1296. In 1498, Maximilian I (HRR) moved his court to Vienna, lock, stock, and choir, thus founding the "Hofmusikkapelle" (Chapel Imperial), and the Vienna Boys Choir. Over the centuries, the Viennese Court attracted great musicians like Isaac, de Monte, Fux, Caldara, Gluck, Salieri, Mozart, and Bruckner; Joseph Haydn, Michael Haydn, and Franz Schubert were themselves choir boys. Until 1918, the boys sang exclusively for the court. In the 1920s, the choir was reestablished as a private organisation. Since 1926, 2483 choir boys has sung 1000 tours in 97 different countries. Gerald Wirth is the Artistic Director and president.

Today, there are 100 choristers between the ages of nine and fourteen, divided into four touring choirs. Each choir spends nine to eleven weeks of the academic year on tour. Together, the choirs give around 300 concerts each year, attended by almost half a million spectators around the world. The choir regularly tours Europe, Asia and Australia, and the Americas. The choir's first journey is to South Korea took place in 1969.

On Sundays, the boys perform with members of the Vienna Philharmonic Orchestra and of the Vienna State Opera Chorus in Vienna's Imperial Chapel, as they have done since 1498. In 2012, the choir opened its own concert hall, MuTh; the state-of-the-art facility seats 400 and has proven highly popular with both artists and audience.

The choir's repertoire includes everything from medieval to contemporary music. Motets and lieder form the core of the touring repertoire, as do the choir's own arrangements of Viennese music. The choir also performs children's operas and world music.

The first ever sound recording of the choir was made on a wax cylinder in 1907; since then, the boys have recorded 43 shellacks, 55 singles, 128 LPs and 150 CDs on every major label. In 2015, the choir signed a longterm deal with Deutsche Grammophon. The most recent CD, "Strauss For Ever", was released in 2018. 26 films and 17 TV documentaries attest to the choir's international appeal. In 2008, the choir began collaboration with New York-based filmmaker Curt Faudon; since then, three major music films have been released; a fourth, "Good Shepherds", is in produ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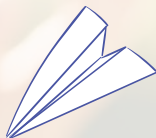
The Vienna Boys Choir performs with major orchestras, such as the Vienna Philharmonic Orchestra, the Vienna Symphony Orchestra, the Staatskapelle Berlin, the Oslo Philharmonic, the Pittsburgh Symphony Orchestra, conducted by Riccardo Muti (honorary member of the Chapel Imperial), Andrés Orozco Estrada, Christian Thielemann, Simone Young. Special highlights are the appearances at the Vienna Philharmonic Orchestra's New Year's Concert. In 2012 and 2016, the boys performed under the baton of Mariss Jansons.

President & Artistic Director

**Gerald Wir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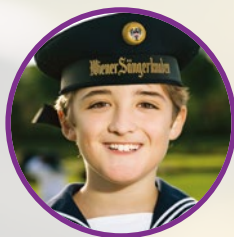
# VIENNA BOYS CHOIR



## MEMBERS OF HAYDNCHOR



AARON



ADRIAN



ALEX



ANDREJ



DRAGAN



GABRIEL



HAMZA



HAVAL



ISAAC



JANOS



JITSUHIRO



JULIAN



KODAI



LEO



LORENZ



MARKO



MASON



MATEO



MORITZ-GABRIEL



MUQIAN



PAUL



PETER



RISHAN



ROBIN



RUBEN



STEFAN



STEVEN





# CREDIA

## 선원들, 황제들, 산적들 그리고 슈트라우스의 노래를 부르는 일의 어려움에 대하여

슈트라우스 일가가 쓴 왈츠와 폴카 작품들은 빈 소년 합창단의 주종목이자, 어떤 의미에서 그들의 음악적 명함이라고 할 수 있다. 1920년대 초부터 합창단은 꾸준히 이 작품들을 불러 왔으며, 유서깊은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신년 음악회에도 여섯 번이나 초청되어 무대에 섰다.

이 소년들은 슈트라우스의 곡을 부르는 것을 즐긴다. 음악은 신나고, 역동적이며, 빠르다. 쉽게 들리는 것들은 사실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한다. 합창단의 예술감독인 게랄드 비에트의 말에 따르면 빠른 곡은 노래부르기 특히 까다로운데, 아름답게 소리를 가다듬을 시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음들은 역동적인 곡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고스란히 간직한 채 관객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신나는 폴카를 부르는 것이 복잡한 르네상스 시대의 작품을 부르는 것보다 더욱 어려운 일일지 모른다.

합창단이 처음으로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왈츠를 녹음한 것은 1933년의 일이며 <빈 숲 속의 이야기>가 1937년에 그 뒤를 이었다. 1939년에는 미국에서 슈트라우스의 전 작품을 망라하는 컬렉션을 녹음하였다. 합창단이 가장 최근 슈트라우스의 작품을 녹음한 것이 1999년이므로, 지금이야말로 새 앨범을 발매하기 알맞은 시기일 뿐만 아니라, 합창단의 슈트라우스 레퍼토리에 새롭게 녹음한 곡들을 추가하기에도 안성맞춤인 때이다.

새 앨범에 수록된 작품들 중 세 곡은 이번엔 최초로 녹음된 것이다. <Matrosenpolka (선원들의 폴카)>, <Banditentgalopp (산적 갈롭)>, 그리고 앨범전체의 제목이기도 한 <For ever! (영원하라!)>에 이르기까지. 작품들의 가사는 빈의 소년들에게 어울리도록 쓰여진 것으로서, 선원들과 유령, 산적이나 햄스터들에 대한 내용이다. 진지하게 경청해야 할 심각한 주제는 아니지만, 즐겁게 듣고 '영원히' 소중한 간직될 만한 이야기이다.

글 | 티나 브렉볼트 (Tina Breckwoldt)  
번역 | 김지훈

# 빈소년 합창단

3년 만에 발매하는 새 앨범



## 520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빈 소년 합창단 슈트라우스 포 에버

슈트라우스 일가가 쓴 왈츠와 폴카 작품들은 빈 소년합창단의 주종목이자, 어떤 의미에서 그들의 대표 작품으로도 평가 받고 있는데 이번 앨범에는 슈트라우스의 음악을 담았다

이 앨범에 수록된 작품들 중 <Matrosenpolka (선원들의 폴카)>, <Banditengalopp (산적 갈lop)>, <For ever! (영원하라!)>는 이번 앨범에 최초로 녹음되었으며 가사는 합창단 소년들에게 어울리도록 쓰여져 더 큰 재미를 준다



# 머레이 페라이어

MURRAY PERAHIA

PIANO RECITAL

2019.3.5 TUE 8 PM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빈 소년 합창단이 전하는 아름다운 신년 인사



### 세계 음악사를 대표하는 소년 합창단

‘세계 음악의 수도’라 불리는 오스트리아 빈에는 전 세계 음악팬들을 가슴 설레게 하는 수많은 음악관련 단체들이 있다.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빈 국립오페라는 오케스트라와 오페라의 세계 No 1.이며, 그들의 흥그라운드인 콘서트홀 무지크페라인잘과 오페라하우스 빈 슈타츠오퍼 등도 음악인들에게는 꿈의 무대요, 애호가들에게는 평생 단 한 번이라도 찾아가고 싶은 음악의 성지로 통한다. 유서 깊은 최고의 문화도시답게 이들 연주단체와 공연장 등은 모두 150년이 훌쩍 넘는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의 음악전통에 있어 빈 소년 합창단의 역사는 실로 독보적이다. 1498년 황제 막시밀리안 1세의 칙령에 의해 황실 성가대로 출발한 이래 지금까지 무려 520년의 음악 전통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빈 소년 합창단과 직간접으로 관계를 맺은 이들은 그야말로 세계 음악사의 빛나는 별들이었다. ‘교향곡의 아버지’ 요제프 하이든과 ‘가곡의 왕’ 프란츠 슈베르트가 소년 시절 합창단원으로 활약했고,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는 일요일마다 호프부르크에서 장엄미사를 노래하는 빈 소년 합창단을 수차례 지휘했다. 궁정 오르가니스트이자 후기 낭만주의 교향악의 최후의 사도로 일컬어지는 안톤 브루크너도 소년 합창단을 정기적으로 지휘하며 이들과 깊은 음악적 인연을 맺었다. 이런 전통에 따라 모두 100여명으로 이뤄진 빈 소년 합창단도 네 개의 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하이든, 모차르트, 슈베르트, 브루크너팀이 그것이다. 한 마디로 빈 소년 합창단은 오스트리아, 아니 지난 500여 년간 세계 음악사를 대표하고 대변하는 최고의 소년 합창단이라고 할 수 있다.

### 맑은 음색의 완벽한 화음을 지닌 소년 합창단

놀랍도록 오랜 역사를 지닌 합창단이지만 빈 소년 합창단이라고 세월의 질곡에서 자유로웠던 건 아니다. 황실 직속의 소년 성가대로 활약하던 중 1차 세계 대전이 발발했고, 곧 오스트리아는 패전국이 되어 제국 자체가 소멸된다. 이에 따라 황실 소속 소년 합창단도 갈 곳을 잃고 방황했으며, 400년 가까이 지속된 음악 전통도 과거의 기억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때 열성적인 단장 요제프 슈니트가 발 벗고 나서 1924년 순수 민간단체인 빈 소년 합창단으로 새롭게 태어나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제국 소년합창단 시절 단검이 장식된 군대 간 부후보생 풍의 단복을 입고 있다가, 오늘날의 화사한 푸른 색 세일러복으로 유니폼이 바뀐 것도 바로 이때다. 현재 소년 단원들은 빈의 제 2구 레오폴트슈타트에 있는 장대한 바로크 궁전인 아우가르텐 궁(Palais Augarten)에서 기숙하며 음악활동을 펼치고 있다. 같은 공간에서 한술밥을 먹으며 함께 노래하고 공부하는 만큼 서로 간의 호흡이 완벽에 가깝다는 평을 듣는다. 특히 20세기 후반에 이르러는 전통적인 오스트리아 민요와 가곡, 종교음악, 왈츠 등에만 국한되지 않고 팝과 영화음악, 월드뮤직까지도 노래하며 폭넓은 음악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역시나 소년들이 들려주는 이 완벽에 가까운 아름다운 음악 때문인 것이다.

### 한국과의 아름다운 인연

빈 소년 합창단은 의외로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깊은 합창단이다. 2012년 9월 빈 소년 합창단 역사상 최초로 여성 지휘자를 임명했는데, 바로 우리나라의 김보미 선생이었다(현재 연세대 교수). 그는 동시에 빈 소년 합창단 역사상 최초의 한국인 지휘자이기도 했다. 김보미 지휘자는 스물 여섯 명의 소년으로 구성된 모차르트 팀을 맡아 황실 미사, 오스트리아 전국 투어, 전 세계 순회공연 등의 뼈든한 일정을 완벽하게 소화해냈다. 현재 빈 소년 합창단에는 한국인 소년들이 단원으로 맹활약하고 있다. 1986년 첫 외국인 단원이 입단한 이후 오스트리아 국적이 아닌 외국인들도 누구나 오디션을 통해 빈 소년 합창단에 입단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우리나라 소년들도 그들의 미성을 전 세계에 뽐내고 있는 것이다. 한국과의 이런 깊은 인연 덕분에 ‘아리랑’ 같은 우리 민요도 곧잘 레퍼토리로 노래되고 있다.

빈 소년 합창단은 음악으로 이룩한 평화와 행복의 상징과도 같다. 깊고 오래된 전통, 아름답고 조화로운 하모니, 경계 없는 폭넓은 레퍼토리로 모든 이에게 기쁨과 웃음, 행복을 선사한다. ‘전 세계가 사랑하는 소년 합창단’, ‘천사들의 목소리’ 빈 소년 합창단의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2019년 새해를 어느 때보다 힘차게 시작해보자.

글 | 황지현 음악 칼럼니스트

뚜루루 뚜루 신나는 클래식 여행

**CREZIA**  
MUSIC & ARTISTS

# 핑크포 핑퐁 클래식 나라

## 뚜띠를 찾아라



2019.5.6(월) 롯데 콘서트홀

출연 핑크포, 아기상어, 대니 구(바이올린) 디토 체임버 오케스트라



2018 글로벌고객만족도 역량조사  
항공여객운송서비스 부문 1위 대한항공



# BOSTON

가장 미국다운 미국, 보스턴을 만나다

대한항공 4월 12일 보스턴 신규 취항

델타항공과 함께 미주 290여개 도시로 당신을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KOREAN AIR** SKYTEAM

[www.koreanair.com](http://www.koreanair.com)



미국의 초대 대통령  
GEORGE WASHINGTON



# WIENER SÄNGER KNABEN

주최

**CREZIA**  
INTERNATIONAL

후원

**KOREAN AIR**

# CREDIA



CREDIA에 의해 창작된 프로그램북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Unported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REDIA의 저작물에 기초

이 라이선스의 범위를 넘는 이용허락은 CREDIA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온라인 프로그램북 서비스는 클럽발코니닷컴에서 제공됩니다.

This e-book is exclusively provided by Club BALCONY.

[www.clubbalcony.com](http://www.clubbalcony.com)